여의도 하스팟

미국 증시,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의 영역 (2)

Analyst 하장권 research.ha@hmsec.com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전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호조로 개장 직후 +2% 수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개장 직후 진행된 해먹 총재의 발언으로 -1.6%까지 하락 전환하여 마감. 해먹 총재는 과거 침체 수준은 아니겠으나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꺾음. 추가적으로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짧게 끝날 가능성도 내비침

이틀 전 자료**(11/19 [여의도 하스팟] 미국 증시,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 시장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란 입장 고수. 개장 전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비농업고용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실업률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며 혼조된 데이터가 발표됨. 뒤늦게 발표된 9월 데이터가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며, 더 부진한 것으로 예상되던 10월 데이터는 결국 발표 취소가 확정됨. 결국,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물가의 최신 데이터가 부재인 것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12월에 밀려있는 지표 발표 자체가 증시 정상화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

지수 자체가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버블과는 달리 이번 랠리는 철저히 이익 기반 담백한 상승세가 진행중**(11/03 [2026년 미국 연간전망] 유동성 + AI = 버블은 필연 (8~9p))**이며 당시와 같은 12MF P/E 20배 레벨이라 하더라도 NPM은 당시 대비 2배 수준이라서 멀티플의 체급도 다르다는 입장. S&P 500 지수 기준 추정치 하락과 지수 하락의 폭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익 추정치는 3분기 어닝 시즌 이후 가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익 관점에서 지수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증시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빠지는 쏠림의 해소의 기회. 반대로 불확실성이 걷힐 땐 많이 빠진 종목이 단연 더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기에 낙폭이 컸던 모멘텀/성장 중심의 매수 대응 권고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하장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